

코로나 감염 재생산지수 1.04, 비수도권 전역 1 상회...확산세 여전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전국적으로 1을 웃돌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수도권은 1에 약간 못 미치고, 비수도권은 모두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로는 전환되지 않고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소 편차를 보였다.

손 반장은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은 최근 3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90명, 966명, 지난주 960명으로 유행이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최근 3주간 358명, 499명, 지난주 546명을 나타내 확산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유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특히, 대전·경남·강원·제주 등은 인구 대비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7.25~7.31)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506.0명으로 직전 주(7.18~24)의 1465.0명보다 41.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966.3명에서 959.9명으로 직전 주보다 6.4명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498.7명에서 546.1명으로 무려 47.4



“수도권 최근 3주간 일평균 환자 수 정체...재확산 위험도 존재”

60대 이상 환자도 증가세...정부 “중환자 병상 감소, 명확한 환자 선별 필요”

명이 늘었다.

비수도권 지역별로는 경남권이 18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153.9명), 경북권(84.0명), 호남권

(60.4명), 강원(41.4명), 제주(18.7명) 순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

았던 60대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 7월 둘째 주(7.4~10) 이후 주별로 78.1명→103.0명→132.4명→158.1명을 기록해 2주 사이에 배

로 늘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 병상 수도 588개에서 360개로 줄었다.

특히 급증하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수용할 만한 생활치료센터 여력이 없어 위중증 환자 전용 병상에 배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지난 달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일부 시도에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배정한 확진자 158명 중 103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재분류됐다. 손 반장은 “일부 시·도는 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환자 분류를 할 때

”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고, 신속하게 추가 생활치료센터를 열어 병상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자는 2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누적 1944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 국민의 38% 수준이다.

손 반장은 “금주 초에 2000만 명 이상의 1차 접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 중 아직 접종하지 않은 126만 9000여 명의 접종 예약이 다시 시작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회필수인력이나 감염위험시설 근무자 등 약 200만 명에 대한 접종 예약도 8월 3일부터 시작된다. 또 18세에서 49세까지 일반 국민 1777만 명에 대한 접종예약도 8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김 총리 “코로나 확산세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

[기고]다문화학생꿈을찾아가는진로활동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방역 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여기서 막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본격 진행될 백신접종에도 걸림

“2주 후 광복절 연휴 있어 더 큰 위기 직면할 가능성” “폭염에도 안전 기해야...인명피해 없도록 수시 점검”

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철이라 방역여건이 어렵지만 이번 주 반드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휴가지를 중심으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바이러스의 지역간 전파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휴가철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바이러스의 지역 간 전파 확

산도 경계해야 한다”며 “휴가를 다녀온 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먼저 찾아가고, 사업장도 직원이 신속히 검사받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유행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조심으로 돌아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날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을 향해 폭염 문제에도 안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공식 포함된 이래 첫 위기”라며 “이번 여름은 폭염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평가받는 첫 시험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옥외현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주고 전력망, 철도·도로와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안전 확보와 농·축·수산업 등 분야별 피해예방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오늘부터 60~74세 미접종자 사전예약...우선접종대상자는 내일부터

60~74세 미접종자·75세 이상 고령층 오늘부터 사전예약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8월 접종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60~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 일정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194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오늘 오후 8시부터 원하는 접종 일시 및 기관을 선택해 자율적인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시스템 사이트(https://

ncvr.kdca.go.kr)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등을 이용해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만명도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접종 예약을 마치면 선택한 날짜와 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됐으나 아직 접종하지 못한 사람 126만9천명도 사전예약을 거쳐 오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맞게 됩니다.

3분기 주요 접종 대상자인 18~4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 200만명의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의 우선접종대상자는 내일(3일) 오후 8시부터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군은 대중교통 근무자,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콜센터 종사자 등의 필수업무 종사자와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접종 소외계층이 포함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밀접 접촉자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며 “변동된 내용은 신속하게 안내해 접종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체적 제약이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도 오는 5일부터 백신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발달 장애인 24만8천명, 심장·간·장루·요루 장애인 3만4천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만4천명은 사전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을 마친 후 이 달 2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우선접종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 약 1천577만명에 대한 사전 예약은 오는 9일부터 본격화됩니다.

18~49세는 9일부터 18일까지 ‘사전예약 10부제’에 따라 사전 예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상 생년월일 끝자리가 동일한 날짜에만 예약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상 생년월일 끝자리가 0으로 끝나기 때문에 10일에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마친 사람은 이 달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순희/기자



▲곽항단(경기도 용인시 신갈중2) 학생은 3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학생이다. 낯선 환경과 언어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도 그저 희망일 뿐이었다. 채우는 자와 채워주는 자의 만남 운명처럼 용인시 다문화센터(경기도 용인 수지)를 통해 학단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향단이와 화상 영상으로 인턴뷰를 진행했다. 학생은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학생이다.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어

교수/김원호

내가 직접 만드는 '클린 서구'...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클린 서구'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기회도 마련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은 92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증가했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

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길거리 에 붙여있는 벽보, 전단 및 무분별하게 살포된 불법 명함 등을 수거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벽보는 100매당 A4 초과 4,000원·A4 이하 2,000원, 전단 및 명함은 500매당 2,000원으로 1인당 일 3만 원, 월 50만 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통해 민·관이 깨끗한 거리 질서 만들기에 이바지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클린 서구'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홍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민·관 합동 점검 실시

홍천군은 지난 7월 29일 홍천경찰서,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이용객이 많은 홍천터미널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공중화장실 12곳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읍·면 화장실 58곳에 대해서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공중화장실 담당자가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전파탐지기 및 렌즈탐지기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를 활용해 문과 벽, 천장, 변기, 나사, 콘센트 등에 대해 꼼꼼히 실시했다.

특히 점검시 여성 점검자가 먼저 화장실 내 이용객 유무를 확인하고 화장실 통제 협조 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사를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스티커를 부착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용인시 기흥구, 노상주차장 설치로 주차난과 주민불편 해소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도 폭도 확장

용인시 기흥구는 청덕동의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라 밑집 지역인 청덕동 578번지 일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불편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 초 이 일대에 노상주차장 44면을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상주차장 공사 구역을 따라 설치돼 있는 인도의 폭도 기존 1.5m에서 2m로 확장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차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덕동 주민들의 보

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계획에 차질 없이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비공사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경기도, 8월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수사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증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

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증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수사 대상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증주점객원을 고용해 유증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

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평창군, 흥정계곡 불법사향 일제조사

평창군은 올해 여름 지역 내 하천·계곡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일제조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의 일정을 밝혔다.

군은 올해 시범운영하는 하천감시요원 운영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흥정계곡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계곡 내 약 300개소 정도의 불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였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법 검토 및 추가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복구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지역 내 계곡을 찾는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희영 건설과장은 "올 여름 흥정계곡에 대한 하천감시 및 일제조사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향후 관내 하천·계곡에 불법사향 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중구, 가짜석유 판매·불법 석유유통 등 위법행위 불시점검

괴산군·괴산경찰서, 피서철 여름휴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괴산군은 지난 29일 괴산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점검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추진됐다.

괴산군·괴산경찰서 합동점검반은 청천면 화양계곡, 칠성면 쌍곡계곡 등 여름철 관광객 이용이 많은 휴양지를 방문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최만식기자

점검반은 렌즈탐지기 및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군은 합동점검 외에도 읍·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단체) 등에도 장비를 대여해 불법촬영 의심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미선 주민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점검 및 불법촬영 예방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의 가짜석유 판매 및 석유류 불법유통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달 관내에 등록된 주유소 37곳 중 19곳에 대해 시료 채취 후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했으며, 이달 확인 결과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구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짜석유 제품 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용인시, 아동 학습도우미 재능 나눔 대학생 60명 모집

용인시, 8월2일~18일까지...관내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 44곳에 배치

용인시는 8월2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학습도우미로 재능 나눔할 관내 대학생 60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습격차가 벌어진 돌봄 아동들의 학습지도를 돕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원)생과 휴학생이다. 참여자들은 9월~12월 중순까지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4곳에 배치돼 하루 4시간씩 주5일 시간제 학습도우미로 근무하고 매월 약 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3~7월) 54명의 학습도우미를 선발해 지역아동센터 등 39곳에 배치한 바 있다. 시가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참여자의 96.7%가 경력형성 등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했으며, 배치된 시설 관계자의 93.7%는 아동 간 친밀도 형성 측면 등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돌봄아동·대학생·휴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2021.08.02(월) 09:00시 ~ 08.18(수)까지
신청대상 용인시 거주 만18세~만39세 대학생/휴학생
모집인원 60명
근무내용 교과과목 혹은 기타 재능나눔(교과목, 학제, 학습지도 등)
학습도우미로 근무(1일 4시간, 주5일 근무)
근 무 처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접수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참여(apply.jobabare.net)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용인시 청년담당관 324-279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공고문 참조

화성시, 도시기획자 꿈꾸는 청년 모집

화성시청년지원센터 H.E.Y가 도시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2021 화성시 청년도시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키즈온더화성'이라는 주제로 화성의 안팎을 여행하고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를 디자인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선 박도빈 공동대표(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동)와 우영 작가(문화기획자)가 담임멘토를 맡아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 주거, 공간, 문화 등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하는 도시인문학 강의도 준비됐다.

또한 지역 재생 혁신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습투어와 현장조사, 인터뷰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그룹별 도시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8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1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학교, 직장 등 활동 근거지가 화성시인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20명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11일까지 화성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

면 된다. 이윤신 화성시청년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 청년도시학교 뉴키즈온더화성

우리는 어떤 도시를 살고 있을까?
청년도시기획자를 위한 멘토링, 현장학습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를 디자인해보자!

기간: 2021.08.18 ~ 11.10 (매주 수요일 19:00~21:00)

대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학교, 직장 등 활동 근거지가 화성시인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20명

신청처: 청년지원센터 (031-320-1100) /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www.yongin.go.kr)

안성시-경기동부보훈지청, 8월 이달의 안성독립운동가 '김태원(金泰源) 선생' 선정

안성시와 경기동부보훈지청이 공동으로 2021년 8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에 김태원(金泰源, 이명 金一, 1896~1975) 선생을 선정했다.

김태원 선생은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충북지방에서 임정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정책에 대한 계몽과 선전,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 정세 파악, 연통제 및 교통국의 설치 및 활동 상황 시찰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해 8월에는 철혈단과 대한독립단을 조직해 단장이 되어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고, 9월에는 혈북단을 조직해 경기 남부 일대에서 임시정부의 공채를 팔아 군자금을 모집했다.

1920년 3월 혁신단과 제휴하여 '혁신공보'를 발행하고, 4월에 노백린·김좌진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인 대한광복단과 제휴했다. 또한, 5월에는 김상옥·한훈 등 20여 명과 함께 암살행동을 조직하여 8월에 미국 의원단의 내한을 기화로 삼아 일본 총독 암살과 각 관서 파괴 등을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비밀 누설로 체포되었고, 1921년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8월 이달의 안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준규기자

2021년 8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원 출신의 항일투쟁가

안성시와 경기동부보훈지청이 공동으로 2021년 8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에 김태원(金泰源, 이명 金一, 1896~1975) 선생을 선정했다. 김태원 선생은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충북지방에서 임정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정책에 대한 계몽과 선전,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 정세 파악, 연통제 및 교통국의 설치 및 활동 상황 시찰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해 8월에는 철혈단과 대한독립단을 조직해 단장이 되어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고, 9월에는 혈북단을 조직해 경기 남부 일대에서 임시정부의 공채를 팔아 군자금을 모집했다. 1920년 3월 혁신단과 제휴하여 '혁신공보'를 발행하고, 4월에 노백린·김좌진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인 대한광복단과 제휴했다. 또한, 5월에는 김상옥·한훈 등 20여 명과 함께 암살행동을 조직하여 8월에 미국 의원단의 내한을 기화로 삼아 일본 총독 암살과 각 관서 파괴 등을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비밀 누설로 체포되었고, 1921년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하남시, 공정무역 캠페이너 양성교육 통해 '공정무역 정신 확산'

하남시는 하남공정무역협의회 주관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캠페이너(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윤리적인 소비로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빈곤을 돕는 사회적경제 운동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열리며, 29일 첫 개강해 오는 8월 26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된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의 이해와 티파티(Tea Party)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시민 45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을 수료하면 공정무역의 가치 등을 알리는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29일 개강식에는 김상호 시장도 참석, 인사말을 전하며 공정무역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착한소비, 윤리적 소

비라는 공정무역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인 지금, 저소득 국가가 백신 접종과 분배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공정무역 정신의 필요성을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를 하나의 나무라 한다면 뿌리는 마을공동체, 기둥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나무를 이루는 가지는 안전도시·평생학습도시·여성친화도시·자원순환도시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운영, 공공기관 내 공정무역 상품 매장 설치 추진 등은 착한 소비를 통한 세계공동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위해 시 공정무역협의회는 물론, 마을공동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14개 동 유관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환



경교육·평생학습·여성친화 도시 추진과 공정무역 연대도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19년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박강호기자

성남시, 대규모점포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대규모점포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지역 내 대규모점포 종사자 8명이 확진됐고, 시설 특성 상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 시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총 17곳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는 물론 판매원, 청소원, 안전요원 등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1만 2천여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내달 9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

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위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당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욱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안승남 구리시장,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참여 멘토들과 온라인 간담회 개최

청소년·대학생 자원방안 논의 등을 통한 청소년·대학생이 행복한 구리시 조성

구리시는 29일 2021년 상반기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과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대학생 멘토와 함께 청소년·대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이날 간담회는 대학생 멘토들이 ▲청소년 학습 공간 마련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원격 수업 시 급식 지원 ▲마을버스, 경기버스의 배차 간격 조정 ▲청소년(대학생) 모의창업 대회 ▲청소년 진로 상담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가했던 한 멘토는 "시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 멘토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

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준 멘토들에게 감사하다."며,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멘토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시와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7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8월 중 멘토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대학생 멘토들이 청소년 멘토들에게 전문적으로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오산시, 오산평화의소녀상시민문에대전 대상에 윤천고 김태민 학생 '간절한기도' 선정

오산평화의소녀상은 오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년을 맞아 진행된 시민문에대전에서 윤천고 김태민 학생의 '간절한 기도'가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이번 시민 문에대전은 모두 147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대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등 모두 15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13일 오후 6시 30분 오산시청 광장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행사에서 진행될 것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김재용 시인(오산문인협회 지부장), 남경식 작가(오산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서정택 시인, 손찬완 시인, 전해자 오산평화의소녀상 운영위원이 맡아 세심한 검토를 진행했다.

대상에 선정된 김태민 학생의 '간절한 기도'에 이어 최우수상에는 오산정보고등학교 이해원 학생의 '기억'과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간 연이

를 통해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문시중학교 조희주 학생의 '연이야 연이야'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성호초등학교 최성민 학생의 '눈이 부신 평화나비'와 윤천중학교 이윤주 학생의 '마지막 퍼즐조각', 오산꿈드림센터 최혜정학생의 '담담한 속 감춰진 것은', 일반부 고봉국 님의 '어미새'가 각각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정택 시인은 "미래 세대에 평화·인권·희망의 소중함을 주제로 응모된 작품들은 어떻게 주제에 접근했을까가 관심사였다."며 "평화 또는 인권이라는 말이 글에서만 머무르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 나와 우리와 세계를 아우르는 이데올로기로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에대전 심사는 협의적 의미에서의 평화·인권보다는 광의적 의미로 해석된 확장성을 바탕으로 하여 운문 및 산문 작품 중에서 대상 및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을 선정했다."며 "운문 부문에서 '간절한 기도'는 주제의식이 뚜렷하고 선정해 대



상 작품으로 울리기에 손색이 없었다"라고 했다.

최우수 작품 산문 '연이야 연이야'는 첫사랑이었던 연이의 이야기로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간 연이를 통해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있는 단편 소설 형식을 띤 산문이다.

강경남 상임 대표는 "이번 문에대

전에는 인권과 평화의 소녀상을 표현한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면서 "특히 대상 수상작 '간절한 기도'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오산 시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더해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남주기자

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1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 비대면 운영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를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청소년 자원봉사자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즐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는 겨울방학에 진행한 버드세이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한눈에 보는 하남의 1919'와 같은 하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콘텐츠로 더욱 풍성하게 마련했다.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봉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남양주시 다산1동, 신규 입주 아파트 대상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연내 인구 9만 돌파 예상...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시민 편의 증진에 앞장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용복)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입주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산1동은 지난 3월 인구 8만을 돌파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에는 6천 여 세대의 공동 주택 입주가 확정됐다. 특히, 2022년에는 행복주택 등 신규 공동 주택에 7천 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다산1동 인구는 연내 9만을 넘어 내년에는 10만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비대면 서비스 홍보용 팸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홍보 자료를 지역 카페에도 공유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건설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규 공동 주택 입주 시 건설사

홈페이지 및 입주인 카페를 활용해 입주 시 예상되는 혼잡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직접 관리 사무소를 방문해 입주 아파트 전용 배너 및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오는 8월 입주하는 다산 자연엔자이 건설사인 GS건설과도 사전 업무 협의를 통해 자이 홈페이지 이사사전에 계약 페이지에 온라인 전입 신고와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입주자 공동 카페인 '다산신도시 자연엔자이'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협의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외에도 다산행정복지센터는 향후 입주 예정인 다산센트럴파크 6단지, 다산메트로 3단지 등 1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해 하루 평균 700명 이상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민원을 분산시키고, 민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용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다산1동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가 될 왕숙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 인구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시가 성장하고 확대되는 시기에 안정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고양시 장항2동, 법원 내 이동민원실 운영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층에 설치한 '법원 내 이동민원실'을 4주간 운영한 결과 일일 60여명의 법원 민원인이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법원 내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은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고양시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양 기관이 벽을 허물어 상호협력 한 사례이다.

이동민원실은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 2명이 파견하여 운영 중이며, 개소 후 일일 평균 60여명 민원인이 100여건의 필요서류를 발급받았다.

기존에 법원 민원인은 법원과 별도로 7분 거리에 있는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를 오고 가야 했으나, 이제 법원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 민원편의가 대폭 개선된 것이다.

또한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점과 법원 관련 민원처리량에 비해 고양시 39개 동 중 민원처리량이 단연 1위인 동으로 민원인이 대가하는 시간이 많았으나, 이동민원실 설치에

따라 민원이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는 4주간 이동민원실 운영결과를 토대로 8월 2일부터 기존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에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증명서를 추가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한민수 장항2동장은 "법원 내 이동민원실 설치로 민원인이 법원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민원수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등을 확대하게 되어 향후 이동민원실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즐거움 & 힐링이 있는 남원여행

남원의이끼종

숲에서 휴식 운동 서어나무숲 | 허브향기 가득한 지리산허브밸리 |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로지 | 나무 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천혜의 절경 지리산백사골계곡

www.namwon.go.kr

경상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 위, 누리소통망(SNS)서포터즈 모집

경상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 위원회가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엑스포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내달 25일까지 '하동세계차엑스포 SNS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유튜브, 블로그 2개 분야 총 30명 내외의 서포터즈를 선발할 계획이다.

'하동세계차엑스포 SNS서포터즈'는 하동 차에 관심이 많으며 취재활동이 가능한 자로, 현재 활발한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 또는 블로그 계정을 소지하고 영상 촬영·편집 또는 사진 촬영·글쓰기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서포터즈는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소식 취재, 각종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자신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계정에 콘텐츠를 게시하게 되며, 엑스포 공식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방문하여 콘텐츠 공유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콘텐츠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하동군 행사·축제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활동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엑스포 누리집 광고게시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에 재능있는 30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하동 차의 가치 발굴과 차산업 확장 및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SNS서포터즈 모집

특정지역에서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소셜미디어 상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SNS 서포터즈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별도 공지합니다.)

모집기간: 2021. 7. 28.(수) ~ 8. 25.(수)

모집인원 총 30명(유튜브 5명, 블로그 25명) (※ 신청 접수일로부터 2명 이상은 필수)	선발기준 - 서포터즈 선발 평가표에 따른 총점 우수로 선정 - SNS 활동, 신청서 작성 내용 등 검토하여 최종 선발
활동기간 2021. 9. ~ 2022. 5. (약 9개월간)	제출서류 SNS서포터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원분야 유튜브(영상), 블로그(기사)	지원방법 하동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emy019@korea.kr)로 제출 (※ 접수일로부터 당일 18:00 도착(금지 후))
지원자격 하동지역에 거주하는 전 국민 누구나 - 취미로 관심이 많으며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 - 현재 활발한 SNS활동 하고 있으며, 유튜브 또는 블로그 계정을 소지한 사람 - 영상 촬영·편집 또는 사진 촬영·글쓰기에 능숙한 사람 - SNS를 활용한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활동내용 -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소식 취재, 각종 콘텐츠를 발굴·제작 및 게시를 작성 (※ 유튜브는 총 5명, 블로그는 총 25명까지 가능) - 지원 분야 SNS콘텐츠(유튜브·블로그) 위해 텍스트·인스타그램에 할 2회까지 게시 가능 - 엑스포 공식 SNS 주 1회 이상 방문 (영상, 촬영, 콘텐츠 공유 등 홍보활동 전개) - 서포터즈 별대체 등 온·오프라인 타담 참석
활동혜택 - 유튜브 영상, 블로그 사진·영상 등 차에 시 활동보상금 지급 - 하동세계차엑스포 SNS 서포터즈 위촉금 수여 및 서포터즈 증정 - 하동세계차엑스포 인문관광도시 홍보물품 등 증정 - 하동군 행사·축제 참여 기회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용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지역물류기업부흥 계기 마련"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물류기업 모집...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부산시가 지역 물류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제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물류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대기업과의 물류 경쟁 속에서 네트워킹 및 자본조달 연계 등에 직면한 지역 영세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20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컨설팅과 교육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물류 플랫폼 활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물류기업의 해외 신규물량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WCA(World Cargo Alliance, 국제화물포워딩연합) 가입 해외 화주 연계를 통한 불확실성, 유엔조달 물류시장 진출 컨설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참가신청서와 기업현황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물류 환경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시행자인 부산테크노파크는 올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다양한 신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물류수산업에 비대한 지역물류기업들은 "물류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물류기업에 새로운 부흥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산청군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산청군이 내년부터 곳감생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삼장·시천·단성면 지역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에 총 사업비 36억원(국비 18억원)을 투입해 '산청곳감생산단지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삼장·시천·단성면 지역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270곳, 태양열 60곳, 지열 2곳 등 모두 332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곳감생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자립화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지역 곳곳에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사업비 3억6900만원을 투입해 예술인공동체 극단 '큰들'의 마당극마을, 2021년에는 26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서면 일원 마을과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했다.

특히 큰들 마당극마을은 현재 전가구가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 맞춤형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촌마을에 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가 50% 지원된다.

최광용기자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과 체험의 공간으로 '변신중'



캠핑장, 주차장, 피크닉장, 공연장 등 조성 2023년 준공 예정

고성군이 남산공원이 내추럴 힐링 캠프 조성사업으로 힐링과 체험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남산공원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편입되지 보상과 대상지 지정, 남산공원 내 진입도로 노선변경 행정절차 등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시계획도서가 완료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캠핑장과 주차장 조성(79대), 피크닉장 등을 토대로 고성의 가을을 연상시키는 조명이 설치된 터널과 고성읍 시가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시설이 조성된다.

또 포토존과 휴식공간, 소규모 공연장, 말하는 나무, 스마트 미디어 글라스, 어린이들이 놀며 체험할 수 있도록 남산의 지형 높이를

활용한 4계절 슬라이딩 쉼대장 등도 마련된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글라스는 낮에는 일반 투명한 유리 난간이지만 밤에는 고성의 시가지와 남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경관 시설물로서 특별한 날에는 미디어 글라스에 남겨 주민들에게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남산공원 내 진입 터널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 완료 목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백두헌 고성군수는 7월 29일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백 군수는 "남산공원을 코로나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힐링이 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거제시, 21년 상반기 공모사업 43건 선정·국도비 248억 확보

역대 최대 선정,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로 지역발전의 재정적 기반 마련

거제시는 정부 각 부처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총 4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30억(국도비 248억)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25건, 169억) 선정건수가 1.7배, 총 사업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을 사전 분석해 지역현안 사업 발굴에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거제시가 당면한 조선경기 침체와 도농 격차 심화 등 현안 과제를 국비 공모사업에 접목해 외부제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상반기 주요 선정 사업으로 ▲거제 조선협회명센터 운영사업(20억)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54억)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25억) ▲농촌 유류시설확충 장암지원(14억원) ▲어촌뉴딜 300 선도사업(51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51억)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47억) 등 일자리·농·어촌·복지·환경 등 사회 곳곳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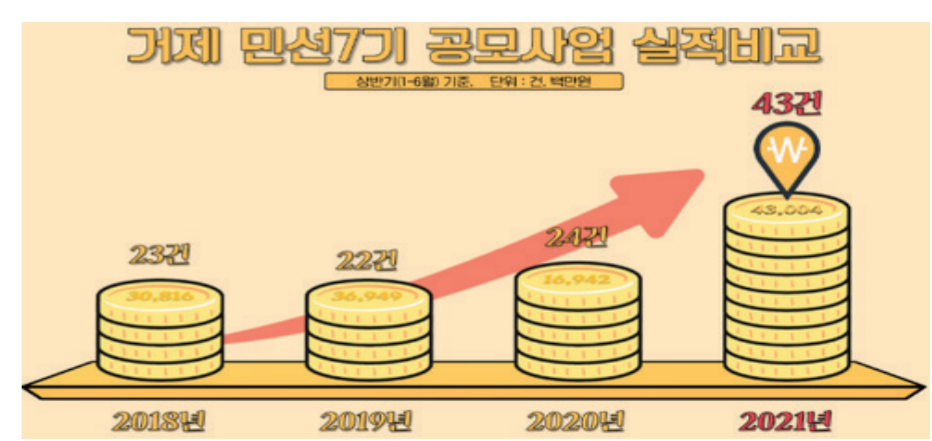
거제시는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집중해 총 182건의 사업에서 2,189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현재 심사 중인 공모사업을 제외해도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하반기에도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많은 국비공모사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시기각각 변하는 내·외 정세에 맞춰 연구·용역, 국가 예산 분석, 직원 역량 강화 등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조선산업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특성화 지역거점 지원사업, 어촌 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 거제 미래 먹거리 마련과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자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온 이 성과는 저를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온 결실이다."라며, "올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분석과 대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남해군,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남해군은 29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환경본부 등 6개 기관과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이 협력하는 플라스틱 Free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재사용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거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남해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환경본부, 남해군 새마을부녀회, 남해농업협동조합, 동남해농업협동조합, 남해시장상인회 등 6곳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군단위로는 최초로 남해군이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환경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해군은 아이스팩 재사용 수집·운반·홍보 등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되며, 참여기관은 수집된 아이스팩의 선별 및 세척, 배부 등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나선

다.

남해군은 수거된 아이스팩을 남해농업협동조합, 동남해농업협동조합, 남해시장상인회 등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운영 후 아이스팩 배출량을 고려하여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장종남 남해군수는 "아이스팩이 우리 일상의 식생활에는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무분별하게 버려짐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자연 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작은 실천으로 보이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탄소중립과 깨끗한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무척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전남도의회, '총무공 이순신 약무호남 시무국가 발자취를 찾아서'

'임진왜란 연구회' 정유재란 한·중·일 격전지 순천왜성을 가다.

전남도의회 '임진왜란 연구회' (대표의원 임종기, 더불어민주당, 순천2)는 지난 29일 연구회가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와 순천왜성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총무공 이순신의 병참 활동과 호남 민초들의 구국 정신에 관한 우리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전남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회는 전남대학교에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발자취를 찾기' 연구 용역을 의뢰 하여 총무공 이순신의 병참활동 유적지를 역사적 고증을 거쳐 지역관광자원이나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뜻의 총무공 이순신의 어록이며, 순천왜성은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대치하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동아시아 전쟁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전남대 노기욱 교수는 "순천왜성은 한·중·일 3개국에 대립한 격전지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내 관광객은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호남 민초들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유적지를 역사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마련하여 전남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진왜란 연구회'는 임진왜란 당시에 호남의 구국활동을 연구하여 호남의 문화유산 발굴과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연구용역과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기(순천2), 이광일(여수1), 이동현(보성2), 사순문(장흥1), 한근석(비례), 조광영(해남2), 이철최명수(나주2), 이상철(곡성), 안도1), 신민호(순천6), 김영안(기차



이동현(보성2), 사순문(장흥1), 한근석(비례), 조광영(해남2), 이철최명수(나주2), 이상철(곡성), 안도1), 신민호(순천6), 김영안(기차

광양시, 여름방학엔 송고한 장인정신과 숨결 배워요

광양시가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를 이어 흐르는 장인정신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추천한다.

광양에는 장도, 궁시 등 발품을 팔아 구한 재료에 오랜 기다림과 혼을 담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장인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간이 많다.

3대째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粧刀匠)의 맥을 이으면서 전시, 체험 등 특별한 스토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광양장도박물관이 있다.

장도(粧刀)는 강철을 1,000℃ 이상의 불에서 달구고 두드리는 등 177번의 공정 끝에 탄생하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장도를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장도장이라고 한다.

장도 하면 긴 칼을 떠올리기 쉬운데 금, 은, 비취, 물소 뿔 등 귀금속으로 만든 칼자루와 칼집, 섬세하게 새긴 국화, 운학 등의 문양을 보면 '아름답게 장식한 칼'을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층 전시관에는 세계 각국의 도검, 판타지검 등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장도장의 작품 외에도 장도의 역사, 제작과정 등이 진지하게 펼쳐진다.

무엇보다 쉽게 변화하는 시대에 수십 번 담금질하고 버린 예리한 칼에 3대에 걸쳐 우직하게 일관심(一片心)을 새겨가는 거룩한 일념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장소다.



특히, 오는 7월 31일~8월 2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각각 2회씩 열리는 박종군(2대) 보유자, 박남중(3대) 이수자, 정운숙 이수자, 박건영(3대) 전수장학생의 은장도 단계별 부분 시연 '대를 잇다'는 놓치지 아까운 기회다.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은 전남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광양 궁시장(弓矢匠)의 기·예능을 이어가는 광양궁시전수교육관이다.

궁시장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술 또는 사람으로, 광양 궁시는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야 하는 화살의 성능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성까지 갖춘 걸작이다.

전수관에는 활과 화살, 만드는 도

구, 제작과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김기 궁시장과 김철호 전수자가 2대를 이어 궁시 제작과 함께 궁시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박순기 관공장은 "칼, 활, 화살 등은 선사시대부터 인류와 운명을 함께해 온 혁명의 아이콘이었다"며, "광양은 섬세한 세공에 심혈을 기울여 예술로 승화시킨 장인의 정신과 숨결이 면면히 흐르는 고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 대를 이으며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광양 장인들의 뜨거운 신념과 정신을 기리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안(기차

목포시, 유튜버와 함께 관광 매력 홍보

목포시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인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유튜브 페스티벌(라이브 in 목포 시즌2)' 공모전을 개최한다.

'유튜브 페스티벌'은 유튜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목포 관광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린다.

주제는 목포를 홍보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담으면 되며, 유튜브 계정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포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8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목포문화재단 전자우편 또는 웹하드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들은 심사를 거쳐 10월 30일 시상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을 동시에 진행해 목포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팀 300만원, 우수상 1팀 100만원, 장려상 3팀 각각 50만원 등 총 550만원이 트로피와 함께 수여되며, 출품작 및 수상작들은 향후 목포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의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화재단 및 목포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문화재단 주민관 사무국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유튜버들을 통해 목포를 홍보하는 프로젝트로서 동시다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볼수록 다수에게 목포를 알

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참신한 콘텐츠로 목포의 매력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윤(기차

2021 라이브 in 목포 시즌2 유튜브페스티벌

공모주제: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의 자유주제

참가자격: 유튜브 계정이 있는 국내 거주자 (외국인 포함) 누구나 참여 가능

대상: 최우수상 1팀 300만원, 우수상 1팀 100만원, 장려상 3팀 각각 50만원

심사 및 시상: 8월 2일~10월 11일 접수, 10월 30일 시상

문의처: 목포문화재단 주민관 사무국 (070-4391-3060)

안도군,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박차

안도군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을 소재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안도군에서는 다양한 해양자원 중에서도 해조류를 특화해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는 지난 1월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을 마련하여 남해권에 해양바이오 소재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여 소재 공급 기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안도군은 3년간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조류 관련 원료 물질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해양바이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기능성 화장품 등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 소재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다.

생산시설에는 탈염·중금속 제거 전처리 공정과 함께 해염(HACCP), 기능성 원료 소재 생산시설(GMP인증) 및 품질 관리 시설이 포함되며, 개관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망성 소재 실증지원' 사업 150억 원,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90억 원 등의 사업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한편 군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110억 원 규모의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바이오 연구단지는 국내의 연구기관들과 기업들 간의 공동 협력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련 신생 창업 기업인 스타트업을 유치해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협력 연구의 주 내용은 '톡 추출물의 차폐 예방 상용화 연구', '갈조류 유래 항염증·항생·면역 개선 천연물 기반 동물 사료 개발'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관련 제품 개발도 주목 받고 있다.

각각의 기반 사업들이 착실히 준비된다면 해조류의 수요량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안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타메디의 경우 해양 천연물 신소재인 썬놀의 원료가 되는 감태를 2025년까지 연간 수요량을 2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어 군에서는 감태 시범 양식에 나섰다.

또한 남부교육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조류 양식 기술을 북측에 이전·보급하고 남측은 북측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해양바이오 제품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료 조사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민 소득 증대와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안도 경제 발전의 근간인 수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영윤(기차

강진군, 상인동아리 운영으로 상가에 활력 넣어

예쁜 손글씨 POP·캘리그래피, 민화가 가득한 우리가게 과정 운영

강진군은 지난 7월 2일부터 강진읍 상인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예쁜 손글씨 POP·캘리그래피'와 '1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쁜 손글씨 POP·캘리그래피'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총 40회) 진행하고 있으며, POP와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상품의 정보를 예쁘고 눈에 띄게 꾸밀 수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 주관하는 '민화가 가득한 우리가게'는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에(총 10회) 진행한다.

정보를 장식할 수 있는 민화 캔버스 액자, 민화 원목시계, 민화 앞치마를 제작할 수 있으며, 단순 만들기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민화 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품에 자



신의 바람을 담을 수 있어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쁜 손글씨 편지현 강사는 "동아리에 참여한 상인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복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어 만족스럽고 뿌듯하다"며 "1:1 맞춤 수업으로 학습 효과를 높여 상인들의 매출도 올리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 시

간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상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군에서도 상인 주도의 자생력 강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정길(기차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삼호 구청장, "인종차별 혐오 반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29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글로벌 캠페인 리브투게더(LiveTogether) 챌린지에 참여했다.

리브투게더 챌린지는 유네스코와 외교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해지고 있는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반대하며 시작한 국제적인 인종차별 반대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 22일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이날 챌린지에 나섰다.

김삼호 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을 받거나 범指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은 다양한 외국인주민 공동체와의 협력과 연대가 답이다"며 "특히,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거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만큼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거듭 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인종차별 대신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를 외친 김삼호 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윤건영 국회의원과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지명했다.

김택윤(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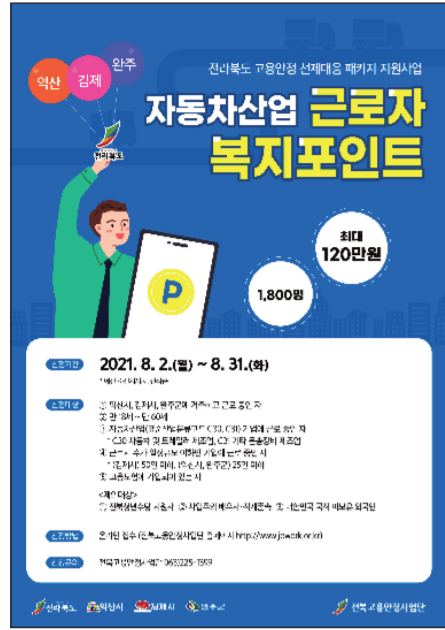


김삼호 구청장이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리브투게더'에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 최대 120만원 지원...지원규모 1,800명

“완주에서 무궁화 화분
받아가세요”

더 좋은 일자리 기금(60억) 1단계 시범사업...효과분석 통해 확대 운영



전라북도(전북고용안정사업단)는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는 군산발 자동차산업 침체로 이어진 인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전라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특별 프로젝트다.

전북도는 그동안 고선패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기금' 60

억 원을 별도로 조성했다. 이에 1단계 시범사업으로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21억 원을 투입해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자동차 관련기업 근로자에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9월부터 3개 시군 각 600여 명, 총 1,800명에게 매 분기별 30만 원을 지역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익산, 김제, 완주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부터 만 60세 이하 근로자다. 또, 김제는 50인 이하, 익산과 완주는 25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관련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유사 지원사업인 전북청년수당 지원자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며, 전북고용안정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재직기업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지역사랑카드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

다.

전북도는 복지포인트 지원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운영하거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2단계 사업을 발족·추진할 계획이다.

이중환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에게 과감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6·25 참전유공자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

남원시는 지난 28일 6·25 참전유공자 유춘근(90세)씨 가정을 방문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였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헌신분투하여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이다.

유춘근씨는 6.25한국전쟁 당시 상병으로 참전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공적을 세운 기록이 발굴됨에 따라 72년만에 명예로운 무공훈장을 받게 되었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달하면서 "이제라도 영예로운 무공훈장을 받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전수하는 자리에 함께한 가족

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하였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6·25 전쟁 당시 전공으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장상황으로 인해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수훈대상자 또는 유가족에게 훈장과 증서를 수여 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순창군,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홍수기제한수위 변경설정,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 수용 등 주장

순창군을 포함한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시군(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은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남원시 급지면 운누리센터에서 발표한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댐법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7개 시군의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 6천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7개시군이 그 원인을 공동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표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제한수위관리를 규정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①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②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

수가 제방부실 ③ 배수기능 불량 ④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으니 댐 관리규정 및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수문제 결론은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분통 터뜨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항과는 7개시군의 작년 조사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톤이라는 것은 매뉴얼상에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홍수기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방류를 하는 등 섬진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은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7개시군은 밝히고 있다.

특히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다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야 섬진강댐 긴급 대방류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인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하여 항의서한을 정리한 순창군수는 섬진강의 대범람으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

에 대하여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창군수는 위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섬진강유역 7개 시·군·시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장관실에서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①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설정(EL.191.5m)요구 ② 섬진강댐 방류피해 재발방지대책 요구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하상준설 등 6개사항 ③ 섬진강댐 하류지역피해주민 손해배상요구 등 7개 시·군 공동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서면을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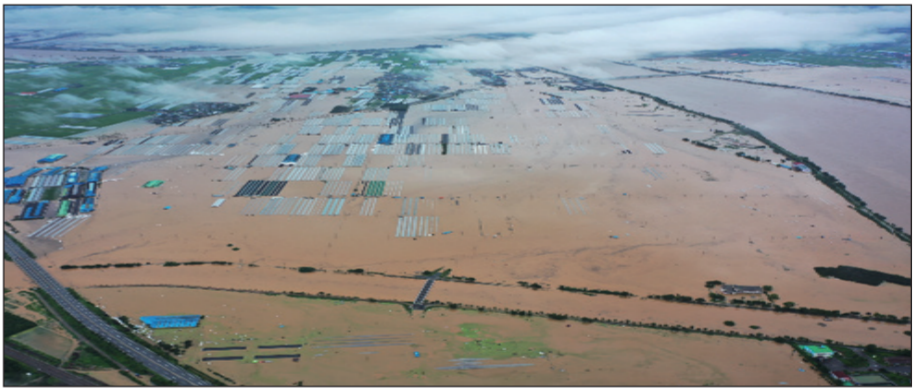
황 군수는 또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 대범람 이후 1년동안 아무런 대책제시가 없다가 태풍 북상을 맞이하는 시기에 갑자기 '한국수자원학회'의 터무니 없는 수해조사 결과

를 듣게 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올해 태풍복상을 앞두고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 시군은 ①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 191.5m로 변경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② 섬진강 20개지천함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할 것. ③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7개 시군을 대표하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선수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사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관측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디자인다해

디자인다해를 검색하세요

디자인다해 since2013

www.designdahae.com

국제안전도시 동해시, 시민 안전 위한 다목적 CCTV 18대 추가 설치

올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22개소 31대 추가 설치

동해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한다. 동해시는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우범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관내 11개소에 다목적 CCTV 18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되는 다목적 CCTV는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설치돼 방범 및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을 비롯해 교통단속, 보행자안전, 도로 상황 확인 등에 활용된다. 또, 시는 우범지역에 CCTV 외 비상벨 4대도 추가 설치해 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올 한해 2억여원을 들여 22개소에 CCTV 31대와 비상벨 7대를 설치하게 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 안전정보센

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총 CCTV 980대, 비상벨 207개소를 활용해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CCTV를 활용한 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실제, 범죄 발생 건수 감소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0여건이 넘는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안정정보센터를 운영한 2016년 이후로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313건의 CCTV 영상자료를 수사목적으로 열람

제공하며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사후 조사(검거)에 기여했다.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에 성공한 동해시는 이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시민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홍성군, 신청사 밀그림 그린다! 전국 설계공모 시작

충남의 중심 홍성군이 옥암리 신청사의 밀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국 설계공모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홍성군 신청사는 홍성을 옥암리 일원에 부지면적 27,635㎡, 연면적 20,739.57㎡, 10층 이하로 총사업비 811억 2800만 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설계공모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홍주천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홍성의 역사성 부각 △시전환에 대비한 가변성 및 융통성 확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열린 휴식공간 제공 △친환경적인 미래지향형 청사 등에 주요점을 두고 설계방향을 제시했다. 공모기간은 2021년 9월 23일까지로 작품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0월 1일에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홍성군 신청사의 기본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고 입상작인 우수작은 4,000만 원, 장려작은 3,000만 원, 가작은 2,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현 회계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하여 청사 이전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홍성군민이 만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선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 현 청사는 1968년 사용승인 후 50년이 넘어 노후화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13,659㎡) 대비 약 52%(7,044㎡) 수준으로 법적인무설치공간인 직장어린이집, 민방위시설, CCTV 관제센터 등은 업무공

간 부족으로 민간위탁 또는 외부에 운영하거나 부채한 상황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홍성군은 지난 2019년 홍성군 신청사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민 선호도 조사 70%와 전문가 평가 30%를 반영해 옥암 도시개발지구를 최종 선정한 바 있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각자도의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원호/기자

홍천 관광사진공모전, 홍천문화와 관광지 찾아주세요

홍천군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는 '제26회 홍천관광사진공모전'의 공모요강을 발표, 홍천관광지원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홍천의 대표적 사진공모전인 무궁화홍천관광사진공모전에서 명칭을 변경해 홍천관광을 위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 방향의 공모전으로 개최된다.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홍천에서 촬영한 인물이 배제된 사진작품이면 된다. 단, 불특정 다수나 풍경 내 관광객 등 인물이 들어간 것은 허용된다. 홍천의 관광자원을 촬영한 사진작품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는 11월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금상 300만원 등 각 분야별 총 81점,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가 부여된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또는 홍천지부 다음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홍천지부로 하면된다. 차재철 지부장은 “26년의 역사만큼 다양한 사진을 활용해 주민 사진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올해에도 홍천의 아름다고 소중한 관광자원과 문화를 발굴, 홍천관광명소가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옥천군보건소, 우울·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 '생명배달' 운영 실시

옥천군보건소는 노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관내 '생명배달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27일과 29일에 4회에 걸쳐 생명지킴이 활동참여를 원하는 자원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25명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했다. 이번 역량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4개 지역 소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 졌으며 충북도립대 사회복지과 김현호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교육을 이수한 생명지킴이 25명은 관내 119명의 고위험 독거노인 가정을 8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안부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예정

이다. 군 보건소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정상군을 대상으로 노인 자살예방연극공연,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수현 정신보건팀장은 “평상시에도 혼자 생활하여 외롭고 힘든분들인데 코로나19로 더 고립되고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우울감이 깊은 고위험군 독거노인에게 이 생명배달사업으로 외부와 접촉기회를 제공하여 노인 우울감 감소 및 자살시도 및 의도자를 구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계룡시,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개선사업' 선정 쾌거

계룡시는 관내 업상상점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룡시 업상상점가 간판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1억 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룡시 업상상점가 간판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이 없는 계룡시에서 골목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업상면 번영2길 200m구간 내 26개 업소의 간판을 각 업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지도록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올해 1월부터 해당 지역의 상인들에게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사업동의서를 제공 받아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서류 및 영상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역으로 예비 선정되었고, 지난달 주민협의체 및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하는 국민디자인단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서를 확정·제출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올해 해당 사업 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도에 간판 디자인 설계 및 각 업소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홍목 시장은 “상인회 및 해당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간판개선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금산군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슬기로운 마을생활 (총8강)

주민자치+농촌+사회적경제+공동체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농촌활력+정신건강
우리마을 생활법률
갈등관리 및 해소방법
마을의계 및 마을재산관리
기후위기와 농업농촌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농민기본소득

이번 교육은 줌으로 진행합니다.

'슬기로운 마을생활'은 금산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전화 070-4112-2964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슬기로운 마을생활 수강생 모집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현장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슬기로운 마을생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8월 9일까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페이스북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비대면 교육으로 8주간 진행되며 마을 현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역량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농촌 활력을 위한 정신건강 가꾸기 △우리

마을 생활법률 △갈등의 이해 및 관점 갖기 △마을 회계 및 마을재산관리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농민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등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 등 지역 문제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해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 활동가 육성 등에 나서고 있다. 김원호/기자

영월군,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준비 완료

영월군이 하승리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막구조)공사를 완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오는 8월 3일 개장을 한다. 스포츠 파크 전천후 테니스장은 총43억원(국비 11.7억원·도비 5.4억원·군비 26.4억)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올여 완공하였으며, 지상 1층, 연면적 2,949.21㎡ 규모로 테니스장 3면에 막 구조물로 내부에는 3면의 코트를 구비하고 있다. 이로써 영월 스포츠 파크 전천후 테니스장은 영월 군민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외 대규모 대회 시 기상악화에 따른 경기장 이동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실내 체육 공간 확충을 통한 군민의 여가문화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체육·문화·청소년 활동이 가능한 복합적인 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전국대회 및 훈련단 유치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릉 관광의 새 얼굴! '강릉시 관광 브랜드' 공개!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현장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슬기로운 마을생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8월 9일까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페이스북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비대면 교육으로 8주간 진행되며 마을 현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역량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농촌 활력을 위한 정신건강 가꾸기 △우리 마을 생활법률 △갈등의 이해 및 관점 갖기 △마을 회계 및 마을재산관리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농민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등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 등 지역 문제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해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 활동가 육성 등에 나서고 있다. 최만식/기자



“우리마을우리가바꿔요” 금정구 주민자치사업 ‘착착’

주민 재능기부 직업교실, 색칠 봉사단 등 특색 눈길

부산 금정구 곳곳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구는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해 주민이 필요로 하고 지역자원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선정된 12개 프로그램은 각 동에서 순항하고 있다. 서3동은 정책 이주자인 인근 마을과 달리 자연부락으로 시작된 지역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 홍보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공모하고 이를 전시하는 ‘행복서삼, 리부트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구서2동은 농부, 자동차 정비사, 플로리스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재능기부해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직업 체험교실을 열었다. 또 남산동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골목길 등에 바다화

를 그리는 ‘알록달록 마을색칠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곡3동은 ‘쓰리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윤산과 땅피산 등 특색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과 가족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숲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부곡4동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 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선두구동은 관내 관광자원인 연꽃소유지를 활용해 ‘제6회 연꽃문화제’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금사화동은 공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빵 활동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곡2동은 동의 옛 명칭인 ‘봉다미’를 브랜드로 봉다미거리에 마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1동의 도서카드 나눔, 장전2동의 나눔장터, 청룡노포동의 숲 힐링체험교실, 구서1동의 마을가꾸기 등이 진행 중이다. 구는 연말에 추진 완료한 12개 사

남궁영기기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울산중구지회, 호국영웅장 수여 8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울산중구지회(회장 김덕수)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중구보훈복지회관 4층 대강당에서 6·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장 수여 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울산중구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박태완 중구청장, 홍계성 6·25참전유공자회 울산지부장 및 6.25참전유공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예년 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됐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6.25 참전유

공자분들의 목숨을 건 송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영광과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며 이웃과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호국영웅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덕수 6·25참전유공자회 울산중구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교육해 제2의 6·25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그날을 기억하자”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포천시 가산면 남·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사랑의 옥수수 나눔 실시



가산면 남·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지난 29일 더불어 사는 가산면 만들기 일환으로 ‘사랑의 농산물 나눔’을 실시했다. 가산면 남·여 새마을 지도자는 이번 나눔을 위해 올 봄부터 텃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옥수수 재배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학철 협의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가산면 이웃들이 잘

시라도 더위를 잊고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영구 가산면장은 “무더위 속에서 고생해 주신 남녀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산면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증평새마을금고, 도안면에 물품 기탁

증평새마을금고는 29일 도안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20만 원 상당의 라면 62박스를 도안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탁했다.

임대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성 도안면장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어 감사하며,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시흥시, '(주)케이비시스템 이도근 대표' 정왕본동 어려운 이웃 위해 후원금 전달

지난 7월 29일, (주)케이비시스템은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을근)를 방문해 정왕본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2만 원을 기탁했다.

(주)케이비시스템은 시흥시 정왕본동 봉우재에 위치한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체다. 봉우재에 위치한 7개 기업 대표로 구성된 후원 모임인 봉우재나눔회를 통해 정왕본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라면 20박스를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봉우재나눔회 이름으로 190만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와 빵 15박스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을근 정왕본동장과 이도근 (주)케이비시스템 대표, 봉우재나눔회 관계자(취한강푸드 정태복 대표, 이화부동산 안재광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시흥시 1%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도근 (주)케이비시스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을근 정왕본동장은 “봉우재나눔회를 통한 정기후원도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마련해 주신 후원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1004섬 신안 김환기길 사람들展 개최

전남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고택 (옛)김환기화실에서 7월 29(목)부터 8월 31일까지 「1004섬 신안 김환기길 사람들」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는 안혜경 작가가 만난 김환기길 사람들 인물화 30점과 안좌도 어르신들의 일상을 그린 페인팅 5점이 출품된다.

안혜경 작가는 지난 2020년부터 커뮤니티 아트프로젝트「섬에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른다」를 통해 작업기간 중 신안의 여러 섬에 거주하면서 섬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과정을 듣고 기록해 왔다.

이번 전시 출품 작품들은 안혜경 작가가 4월부터 신안 안좌도에 살면서 읍동마을 김환기고택과 (옛)김환기화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쌍샘점빵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만난 김환기길 사람들 30분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명 이상의 신안 섬사람들을 만나고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라도에서 작업 중이다.

평생 도시에서 살던 작가는 지난해 자은도 둔장마을미술관 개관전시 준비를 하면서 섬에는 도시와는 매우 다른 '섬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섬의 시간'을 자신의 작업으로 지속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시대의 요구로 다리가 놓인 섬은

섬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가 변화되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안혜경 작가의 프로젝트「섬에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여성작가의 섬세하고 순수한 관점에서 기록한 섬생활사이자, 마지막 '인물'의 기록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작품들은 작품 속 인물이기도 한 이삼단 여사가 사는 (옛)김환기화실에서 전시되며, 김환기고택에는 마을에 남은 할머니들의 일상이 담긴 페인팅 작품과 이이남 작가의 영상 작품 '묵죽도'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 전시는 퍼플렉스와 안좌도 신안에서 휴가를 즐기는 방문객에게 시원한 바다바람 같은 전시가 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순수 민간단체와 예술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1004섬 신안의 1도 1뮤지움 정책에 예술가들이 적극 호응한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안혜경의「1004섬 신안 김환기길 사람들」전시는 신안문화사랑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추진되며 신안문화사랑은 지난 4월 창립전시로 김환기고택(국가민속 문화재 251호)과 (옛)서당, 창고에서 '달빛, 바다에 빠지다'展을 개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김영만기자



경기도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 여주시 도자 산업 발전 공로 감사패 받아



재단, 29일 여주시 도자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공로로 여주시장 감사패 받아

한국도자재단이 여주지역 도자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여주시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청에서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재단은 2019년 국내 1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여주시 소재 여주도자세상에 구축해 여주 도예가

육성 및 여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자세상 쇼피몰을 통해 여주도자기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생활도자미술관(구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의 대관전 및 기획전시 등을 개최하며 여주 도예가들의 창작 및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여주 지역 도예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마케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여주지역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북 서예, 문인화(文人畫)에 반하다

제48회 경상북도 서예대전 전시회 개최, 대상에 문인화 부문 김경혜(경주)씨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권오수)가 주관하는 제48회 경상북도 서예대전 전시회가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경북도청 동라관 지하1층에서 열린다.

1973년 제1회 경상북도 서예대전이 개최된 이후 공모전 형식으로 48 회째를 맞는 이번 대전에서는 지난 달 27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을 전시한다.

앞서 열린 공모전에서는 총 540점의 서예작품이 출품돼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1점, 특별상 1점, 특선 83점, 입선 286점 등 총 383점이 입상했으며, 문인화 부문 김경혜씨의 '묵연'이 대상, 한문 부문 윤승희씨의 '별동선생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으며, 입상자 명단은 경상북도 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관람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북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인천 동구, 배다리 이십세기약방 개인소장품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기증

배다리 최초의 약방 '이십세기약방'...1950년대 약방 내·외부 사진 등 뜻깊은 희귀자료 기증

인천 동구가 배다리 최초의 약방인 '이십세기약방'의 운영자故 이종현 씨의 개인소장품을 유족들로부터 일괄 기증받고 8월부터 세부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이십세기약방은 1950년 5월 2일故 이종현 씨가 개업한 배다리 최초의 약방으로 6·25전쟁 이후 인천과 주변지역에 약품을 공급하면서 규모를 늘렸지만 1990년대 폐업했다.

현재는 기존 2층 조적조 건축물을 유지한 채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쳤다. 이후 건물 내 남아있던 이십세기 약방 관련 유물을 동구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에 한 차례 기증한 바 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이루어진 이번 기증에는 이십세기약방을 운영한故 이종현 씨의 4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사진 앨범, 신



문스크랩 등 개인 서류와 수집품 등이 포함됐다. 특히 1970년대 여행수첩과 다양한 88올림픽 기념품들, 가족사진 자개액자 속에 끼여진 1950년대 이십세기 약방 내·외부 사진이 눈길을 끈다.

구 관계자는 "지역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기증 유물로 가치가 높아 박물관에서 세부조사를 거쳐 향후 기증전시회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고흥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고흥 분청사기 도예강좌

고흥군은 500년 고흥 분청문화의 전통을 잇고 도자문화의 대중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8기 고흥분청사기 도예강좌'를 지난 7월 29일에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8기 고흥 분청사기 도예강좌는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분청문화박물관 내 한옥다목적체험관에서 16주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는 초급반(주간반), 초급반(야간반), 중급반, 물레반으로 구분되며, 기존 도예강좌를 3회 이상 수료한 수강생은 중급반, 나머지는 초급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고흥 분청사기의 이론 교육 및 7가지 기법을 활용한 생활자기 제작으로 초급반은 고흥 분청사기의 기초이론 및 분청사기 기법을 활용한 실생활 용기를 만들며, 중급반은 고흥 분청사기의 심화이론 및 분청사기 기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청사기 창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제8기 고흥 분청사기 도예강좌 수료식과 맞추어 '전통 휴가마소성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강생들의 작품은 분청문화박물관 2층 로비에서 '도예강좌 수강생 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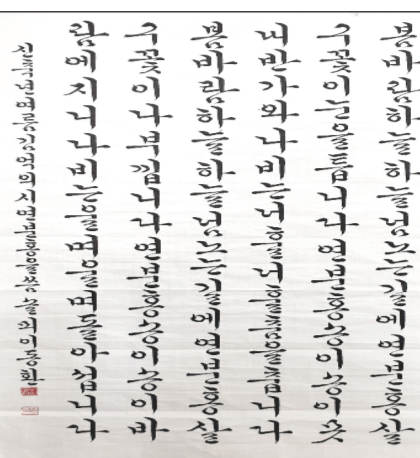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수강생들의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점검,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동해시, 제26회 무릉서예대전 대상... 이동환씨 선정



동해시는 제26회 무릉서예대전 대상에 이동환씨(남·횡성군)의 '연분홍(한글부문)'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한문부문 김철우(삼척)/한글부문 오수전(강릉)/문인화부문 이경자(춘천), 우수상에는 한문부문 김성자, 진길용/한글부문 임영희, 이향심/문인화부문 김복자, 무릉상에는 한문부문 김기영, 박상형, 안호성/한글부문 최명선, 유옥덕/문인화부문 허은서 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특선 27점, 입선 85점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이동환씨는 "서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취미로 서예를 시작하였고, 이번 출품작은 김여님의 연분홍을 현대문 활림으로써 출품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더 서예 공부에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원미술대전과 함께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서예대전인 무릉서예대전은 서예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신예작가 발굴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입상작품 전시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해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2일(토)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김천시립도서관, 더위탈출!! 미우작가와 함께 책 읽고 크는 아이들



김천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미우, 유설화 작가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인 「책으로 노는 게 제일 좋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림책「공포의 새우눈」과 「사탕 괴물」의 저자 미우 작가를 초청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초등 1~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미우 작가는 강연에서 그림책 작가가 된 사연과 함께 그동안 펴낸 그림책들이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스토리를 풀어내어 아이들이 그림책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최근작인 「소원을 들어주는 수수께끼비책」과 「공포의 새우눈」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인형으로 1인극 공연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재활용컵으로 '나만의 눈'을 표현해보고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공유해보는 시간도 진행됐다.

백선주 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도서관에서 만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책과 조금 더 친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책으로 노는 게 제일 좋아!」 프로그램은 오는 8월 4일은 박선희 작가와, 8월 11일은 유설화 작가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러시아 비즈니스 지원사업(판로) 공고

경기도와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으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자사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러시아어로 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의 기술협력 플랫폼에 등재되어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매칭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러시아 협력기관을 통해 러시아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러시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지역 유망 기업이 비대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 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8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지자체 최초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전담기관인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열고 기술 매칭 플랫폼 역할을 추진 중이다.

최정근기자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장까지 확보

30일, LH·주민합의체·중랑구청 간 마을주차장 조성 협약 체결

LH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원으로, 이 지역은 정부 2.4대책에 따라 올해 4월 신규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60세대를 건설한 이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역은 밀집된 저층 주택

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주차공간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랑구청과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실시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마을주차장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에 설치된다. 이 건물은 연면적 5,53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축 예정으로, 지상 1층에 입주권 전용 주차장, 지상 2층~7층까지 공동주택 60세대가 들어서며 지하층은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마을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연면적 1,810㎡ 규모로 총 48면으로 설계되며, 조성된 마을주차장은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해 LH와 주민, 중랑구청은 상호 협력한다. 먼저, 주민합의체는 마을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물공사 등을 총괄한다. LH는 완공된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마을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 중랑구청은 마을주차장을 매입해 공유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추진하는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공유주차장이 복합 개발되는 최초 사례이다.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주차장을 건립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

을 해소하고, 마을주차장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또한 새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마을주차장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성 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홍보영상 제작지원(러시아어) HD FPS 25

러시아 비즈니스 지원사업(판로)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의 **홍보 영상(러시아어)**를 제작지원 해드립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신청서 기입당 최대 300만원 내외 (부가가치세 제외)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pms.gtp.or.kr>

신청기간
2021.07.30(금) ~ 2021.08.27(금)

사업절차

서류평가 - 선정 - 동영상 제작(수혜기업) → 영상제작업체 - 결과보고 회동 -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박성호 대리 031)400-3732 / shpark8160@gtp.or.kr

1:03:57

수산물 1등 온라인 마켓과 경북 수산물 우수성 알린다

양데이블-경상북도·경북경제진흥원 상생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양데이블,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30일 오후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세미나룸(통영)에서 상생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산물 온라인 판매 전문 쇼핑몰을 통해 경북 지역의 우수 수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 양데이블은 경북 우수 수산물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경북 수산물 전문관'을 운영하고, 패키지 기획 및 구성,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데이블은 2017년 거제시로 본사를 두고 영업 중이며, 수산물 전문 온라인마켓 1등 기업으로 신선하고 편리한 제초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의수산물 전 행사 파트너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경장 경상북도 환경해지역본부장은 "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관'을 운영하고, 패키지 기획 및 구성,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데이블은 2017년 거제시로 본사를 두고 영업 중이며, 수산물 전문 온라인마켓 1등 기업으로 신선하고 편리한 제초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의수산물 전 행사 파트너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경장 경상북도 환경해지역본부장은 "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30일 오후 2시 울산경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회 투자유치협의회'는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사)울산산학융합원 등 7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울산경제청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참여 기관별 추진 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 울산경제청의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발굴하고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날 발굴된 사업은 향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등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어려운 투자유치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유치협의회는 지난 7월 3일 출범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의 목적 및 안전에 맞게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군위군, 추석맞이 군위사랑상품권 톡큰 40억원 특별 할인판매 실시

군위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추석맞이 톡큰 40억 원 군위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고 힘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 군위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판매목표 40억을 달성할 때까지 진행되며, 개인은 월 100만 원 구매한도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만19세 이상, 카드형 상품권은 만14세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13개 판매처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혜택이 없다. 카드형 군위사랑상품권은 금융기관 방문신청 외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카드신청·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계좌를 연결해 충전·환불하는

방식이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현 562개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군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범용성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커 지역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 내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민들은 추석명절 특별 할인판매에 따른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증대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천안 풍세2산단,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 통과

지난 14일 조건부 의결, 8월 중 계획승인 고시 및 내년 7월 착공 목표

천안시는 천안 풍세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4일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일원에서 민간개발(㈜풍세2일반산업단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풍세2산단 계획안에 대해 이행 조건을 달고 심의를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행 조건은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확대, 공원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 배치, 기존 풍세산업단지와의 신규로 추진 중인 제6일반산업단지와의 도로 연계성 검토 등이다. 이번 심의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경관 5개 분야에 대해 심의를 일



김원호기자

광주광역시, 신소득작목 애플멜론 실증연구 평가회 열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인가구 증가 및 소비패턴 변화와 여름철 고온기 기존 고선택도 시설 활용도 증대 및 틈새작목 발굴을 위해 30일 '신소득작목 애플멜론 실증연구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광주지역 시설과 채류 재배농가와 소형 애플멜론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을 소개하고, 실증시험포에서 생육 상황과 상품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실증시험포 고선택도에서 딸기 실증연구가 끝난 후 소형 애플 멜론 300주를 심어 적정 출기 유인수 및 최적의 착과량을 연구하여 휴작기에 재배할 수 있는 신 소득 작목 발굴에 나섰다. 문광선 농가는 "광주시는 시설 하우스 농가가 많은데,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휴작하는 것이 보통이라 소득원 발굴이 절실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에 맞는 틈새작목 도입을 위한 애플멜론 연구를 진행해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덕욱기자

영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주민세 감면' 추진...6억7700만원 규모

개인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자본금 30억 이하) 균등분 주민세 감면

경북 영주시가 올해 주민세를 감면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영주시 전 세

대의 주민세(개인분)를 전액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4만8000건, 6억7700만 원으로 올해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배우 전여빈, 3종 커버 화보로 전여빈만의 대체불가 분위기 뽐냈다!

배우 전여빈이 대만 패션 매거진 '엘르 타이완'의 8월호 커버를 장식했다.

최근 '빈센조'가 대만에서 큰 흥행을 이루면서 타이완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그에 힘입어 전여빈이 '엘르 타이완'의 러브콜을 받게 된 것. 엘르 측은 "잘 하지 않았던 3종 커버의 모델로 전여빈을 발탁, 그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하며 대만에서 전여빈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기도 했다.

공개된 3종의 커버 화보 속 전여빈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유니크함이 공존하는 대체로운 면모로 시선을 모은다. 어떤 패션이든 자신만의 매력으로 소화해내는 그녀는 이번 화보에서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모습들은 물론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하며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전여빈은 섬세한 표정과 포즈,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매 컷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담아내며 완성도 높은 화보를 완성시켰다는 후문이다.

한편, 전여빈의 화보는 '엘르 타이완'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은기자

'보이스4' 이하나 "남은 2회, 특별한 것 남아 있다" 끝까지 예측불가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tvN '보이스4'에서 송승헌, 이하나가 '역대급 4인격 연쇄살인마' 이규형과 최후의 결전을 펼친다.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이하, '보이스4')가 이번주 종영하는 가운데 13-14회에 앞서 데릭 조(송승헌 분), 강권주(이하나 분)의 심판의 시간이 담긴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 공개된 스틸에는 마지막 결전에 돌입한 세 사람의 모습이 담긴 가운데 동방민(이규형 분)의 검은 아우라와 냉혈한 무표정이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이어전 스틸에는 데릭 조와 강권주가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담겼다. 동방민과의 치열했던 시간적 끝까지 그를 단죄할 심판의 시간만 남은 듯 두 사람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표정은 비장하다. 타협을 불허하는 형사 데릭 조와 절대적 정각으로 사건의 단서를 잡는 강권주가 동방민의 마지막 악행을 저지하고 그를 검거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이와 함께 이하나와 이규형이 남은 2회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를 전했다. 이하나는 "'보이스4' 마지막 여정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다"며, 이규형은 "최종화에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다"고 말해 이번주 방송되는 최종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치솟

는다.

tvN '보이스4' 제작진은 "데릭 조, 강권주가 동방민의 악행과 동방현의 덕망 뒤에 숨겨진 섬뜩한 실체를 파헤치면서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며 "특히 강권주, 동방민 관계와 관련해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펼쳐질 예정이니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순희기자



굿바이 시즌3 '대화의 희열' 황석영 박지성→밀라노나 박준영... '묵직한 대화 울림'

'대화의 희열3'이 마지막까지 묵직한 대화의 울림을 전했다.

7월 29일 KBS 2TV '대화의 희열3'이 마지막 게스트 '대한민국 최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과의 만남을 끝으로, 시즌3를 종료했다. 최종회를 장식한 박준영 변호사는 승리 보다는 패배 확률이 높은 재심 사건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헌신적인 행보 등을 들려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준영 변호사는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권상우, 영화 '재심' 정우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로 유명하다. '수원 노숙녀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혼오거리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등이 그가 맡았던 재심 사건들.

재심을 한다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뒤엎어야 하기에 더 힘들다. 그럼에도 그가 재심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 그는 자신보다 먼저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구명 운동을 했던 삼중 스님이 있었기에 재심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대개 사람들은 나서지 않고 시작도 안하려고 하는데, 실사 결과 실패라 하더라도 그게 또 다른 도전의 힘이 될 수 있다"라며, 진정한 용기에 대해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박준영 변호사는 무료 변호를 하다 파산을 하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의 스토리 판담으로 5억 6천만 원을 모은 과거도 이야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

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박준영 변호사는 계속해서 재심 사건을 할 수 있었다고. 지금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찾고 있는 그의 행보는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마지막 게스트 박준영 변호사까지 총 10명의 인물, 10개 주제의 대화로 기획된 '대화의 희열3'은 한 사람과의 대화가 이토록 많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수 있는지를 알렷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듣는 삶의 이야기는 '대화의 희열3' 속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 진한 여운을 남겼다.

'대화의 희열3' 첫 시작은 한국 문학계 거장 소설가 황석영으로, 그는 격동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실천하는 문학인의 삶을 들려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다'며 나온 가수 제시는 자신이 생각하는 '센 언니'의 정의를 들려준 솔직 담담한 토크로 화제를 모았다. '육아대통령'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모든 부모들, 어린이들을 위한 명품 조언을 전했다.

박지성과 차범근은 동반 출격해 두 축구 전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줬다. 세대를 이어 한국 축구 역사를 쓴 두 전설의 이야기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 포크송 전설 양희은은 7080 추억을 소환함과 동시에 데뷔 51년차에도 꺼지지 않는 음악 열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또 골프 영웅 박세리는 영광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 치열한 시간에서 얻게 된 '세리 플렉스'를 보여줬다.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행사이자 MZ세대의 롤모델이 된 크리에이



터 밀라노는 "삶은 숙제가 아닌 축제다. 즐겁으면 좋겠다"는 진짜 어른이 전하는 따스한 메시지로 여운을 남겼다. 배우 성동일은 "연기 잘하는 연기자보다 관참은 남편, 아빠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다"라며, 가족을 생각하는 애뜻한 마음으로 감동을 안겼다.

게스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대화를 풍성하게 만든 MC 유희열, 김종혁, 신지혜, 이승국의 호흡도 '대화의 희열3'을 빛냈다. 세 시즌을 이어간 KBS 2TV 토크쇼 '대화의 희열3'은 여전히 유효한 대화의 울림을 남기며, 열혈 시청자들에게 다음 시즌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전순희기자

'월간 집' 김지석, 언제나 정소민 곁에 있었다! '대빵이들' 애뜻 포용으로 마음 확인

JTBC '월간 집' 정소민이 드디어 늘 자신을 응원해주던 '드래곤'이 김지석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내 '대빵이들'이 애뜻한 포용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지난 29일 방영된 JTBC 수목드라마 '월간 집'(극본 명수현 연출 이창민 제작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JTBC스튜디오) 14회에서는 나영원(정소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유사성(김지석)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영원은 "이제 필요 없다"며 차갑게 돌아섰지만, 자성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영원과 대화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일 얘기 아니면 듣고 싶지 않다"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다. 신경(정진주)까지 나섰지만 소용 없었다. 자성이 상처를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대해 호소했지만, 영원은 "어떤 이유가 됐든 내 손 놓는 사람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자성은 계속 노력했다. 영원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 의자를 교체하고, 최고(김원해)에게 혼나는 것도 막았다. 새로 채용된 프리랜서 기자 민국(이이경)조차 자성이 영원을 눈에 띄게 아끼고 있다는 걸 눈치챈 정도였다. 그러나 민국의 눈치 없는 행동은 영원과 자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자성이 알고 보니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인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나운서인 진누나와의 소개팅을 제안했다. 심지어 "나가지 않도 진짜 잘 어울릴 거라고 했다"는 괜한 말까지 덧붙였다. 자성은 다른 여자를 만나도 괜찮다는 영원의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영원이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자성이 정말 소개팅을 나갈지 신경 쓰면서도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영원에겐 자성 말고도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또 있었다. 바뀐 건물주가 엄마의 가게 보증금을 막 무가내로 돌려달라고 한 것. 관련 정보를 찾아봤지만 어려운 용어들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집 마련 왕소금 카페'에 글을 올렸고, 답변을 남긴 이는 바로 그녀를 늘 영원을 응원해주던 '드래곤'. 영원은 그간 혼자 마음 졸이며 흘렸던 엄마의 눈물을 보고

는 "내 손 놓지 않을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영원은 얼마 가지 않아 바로 그 사람이 자성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노트북에서 '내 집 마련 왕소금 카페'와 다크넷 '드래곤'을 보게 된 신경은 이내 "늘 제옆에서 응원해주는 분, 드래곤 님"이라던 영원을 떠올렸다. 그간 자성이 카페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응원해왔던 사실을 알게 된 것. 신경으로부터 "형은 나가지님 손 놓은 적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영원은 즉시 자성에게 말했다.

낮선 여자와 식사를 하는 자성이 소개팅하고 있다고 오해, 그 앞에서 "나 당신만 여자 만나게 둘 수 없다"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 영원. 이내 그가 투자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창피해서 뛰쳐나왔지만, 그런 그녀를 쫓아나와 잠은 건 자성이었다.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 가득한 눈빛과 환한 미소로 재회를 알렸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여의주(채정안)의 비밀이 밝혀졌다.

이날 방송 시청률은 전국 2.7%, 수도권 3.0%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월간 집'은 매주 수, 목 밤 9시 JTBC에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알고있지만' 송강X한소희 '달을 듯 말 듯' 시간차 눈빛 교환



'알고있지만' 송강, 한소희 사이에 오가는 비밀스러운 시선의 의미는 무엇일까.

JTBC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연출 김기남, 극본 정원, 제작 비온드레이·스튜디오N·JTBC스튜디오/원작 네이버웹툰 <알고있지만>(작가 정사) 측은 30일, 아슬아슬한 텐션이 오가는 흥시대 조소과 MT현장을 포착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 박재연(송강 분)과 유나비(한소희 분)의 시간만이 멈춘 듯 서로에게 향하는 진득한 시선이 궁금증을 유발한다.

박재연은 하루아침에 묘연해진 유나비의 행방에 큰 혼란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 오민화(서정원 분)와의 만남 이후에야 유나비를 향한 마음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뒤늦게 유나비를 찾아갔지만, 유나비의 곁에는 양도혁(재종현 분)이 있었다. 뒤늦게 감정을 자각한 박재연과 정리하지 못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유나비, 첫사랑을 고백하며 섬근 다가선 양도혁까지, 짜릿한 삼각 로맨스를 예고하는 엔딩은 기대를 더욱 증폭시켰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도 이어졌다. 굿데이토크퍼레이션이 발표한 7월 4주 차(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드라마 TV 검색 반응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박재연과 유나비, 양도혁과 그의 사촌 동생 양도연(이해원 분)의 모습이 호기심을 더한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못마땅한 듯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박재연이다. 그의 시선 끝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양도혁과 유나비, 유나

비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양도혁과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어진 사진 속 역전된 분위기가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번에는 유나비가 지나치게 가까운 박재연과 양도연의 모습을 발견한 것. 양도연의 간지러운 귀속말에도 무덤덤한 박재연이지만, 유나비의 눈빛에는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다. 자꾸만 어긋나는 두 사람의 타이밍에 점차 고조되는 예민한 감정이 보는 이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31일(토) 방송되는 '알고있지만' 7회에서는 로맨스 라인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다. 앞서 공개된 7회 예고편에서는 자신이 그었던 선을 넘어 유나비에게 다가가는 박재연의 모습이 담겼다. "잘 지냈어? 나는 잘못 지냈어"라며 박재연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드러냈다. 한편, 유나비와 양도혁의 큐피트를 자처했던 양도연은 "박재연 오편방은 무슨 사이예요?"라는 질문을 날리며 뜻밖의 경쟁자로 변신, 긴장감을 더했다. 복잡한 다단해진 관계가 혼돈의 조소과 MT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궁금해진다.

'알고있지만' 제작진은 "박재연의 직진을 가로막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유나비다. 뒤늦게 감정을 자각한 박재연, 그리고 이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유나비의 변화까지, '승자 없는 연애 게임'의 향방이 어떤 결말로 나아갈지 주목해 달라"라고 전했다.

JTBC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 7회는 오는 31일(토) 밤 11시 방송된다.

현유주기자